

SRI

정책리포트

2020. 07. 15.

수원시 도시공간의 격차와 대응과제

이성호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2sungho3@suwon.re.kr

요약

- 도시공간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주거환경지표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수원시 도시공간을 원도심형 근린, 신도시형 근린 등 4가지 유형으로 재분류
- 수원시 도시공간은 경부선 철도, 경수대로 등 남북방향의 주요 간선교통망을 축선으로 하여 지역 간 특성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남북방향의 동질성, 동서방향의 이질성이 높은 형태
- 원도심형 근린은 노후주택 및 노인 1인가구 비율이 높고 토지가격은 낮은 반면, 신도시형 근린은 공동주택 비율과 대졸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간 물리적·사회적 여건 격차 존재
- 원도심형 근린은 의료시설, 복지시설, 공공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양호한 반면 신도시형 근린은 초등학교, 도시공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지역 간 공공서비스 유형별 접근성 양상 상이

정책제안

- 도시공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공간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들을 제안
 - ①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원도심의 질적 수준 제고와 신도시 지역의 접근성 향상 등 차별적인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화 전략 모색
 - ② 물리적 균질성이 아닌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공간정책의 방향 전환을 통해 사회적 역량 극대화 추구
 - ③ 도시공간 격차의 양상과 원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종합적 후속연구 진행

수원시정연구원 수시보고서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고용격차, 소득격차 등 사회계층간 격차의 확대에 의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공간상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면서 공공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각
- 지역격차(regional disparity)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공간적 편차를 뜻하는 것으로, 빈곤, 실업, 교육기회 차단, 문화생활 배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이 공간상에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음을 의미(이규환·서승제, 2009; 장영호, 2015)
 - 과거에는 지역격차를 주로 소득격차라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역복지, 삶의 기회 등 사회적 서비스 수준까지 고려한 광의로 정의
 - 즉, 지역격차는 경제·사회·환경·복지 등 지역의 유지와 존속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두 지역 간에 발생하는 차이로 볼 수 있음
- 지역격차는 불평등한 사회적·경제적 결과인 동시에 또 다른 사회적·경제적 불균등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과 개선이 필요
 - 특히 주거공간의 격차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소외계층의 역량 개발을 제한하여 사회구조의 고착화와 불평등의 확대를 야기하는 장소적 빈곤(place poverty)으로도 이어짐(powell et al., 2001)
 - 사회적으로 다양한 격차가 상호작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생산되면서 기회의 격차의 제도화로 이어지는 격차재생산의 구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간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황규성, 2012)
- 다만 지역격차에 따른 지역불균형이 중요한 공간정책 상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나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도선 외, 2008)
 - 특히 격차를 광의의 의미로 접근할 경우 지역발전의 수준에 대한 정의나 계량화가 불가능하거나 조작적인 지표 개발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
- 수원시 역시 지역 내 격차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초연구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국내 지역격차 연구는 주로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 간 격차 연구가 중심이며,

지역 내 격차는 서울의 강남-강북간 격차, 구도심의 쇠퇴 등 특정 양상에 한정

- 수원시 역시 기존의 원도심 지역과 영통, 광고 등 신도시 지역 간의 격차, 경부선을 축으로 한 동-서간의 격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수원시의 도시 공간상에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격차의 기초 양상을 밝히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함
- 내용적으로는 수원시 도시공간의 재유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 내 격차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격차의 대표적 양상을 밝히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
 - 구체적인 지표 설정과 분석을 통해 수원시 내부공간을 유사한 성격의 몇 개 공간 유형으로 재구분하여 도시공간구조 이해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
 - 공간상의 격차 양상과 도시정책상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수원 내 지역유형간 격차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제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간 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과제의 발굴 검토
 - 이 연구는 수원 도시공간의 격차 양상을 밝히는 예비적 연구로, 향후 본격적인 지역 내 격차의 양상 파악과 대응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수원시 도시공간의 특성과 유형화¹

1 분석자료의 구축

1) 공간단위 설정 : 집계구

- 행정구역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수원시 내부의 구체적인 지역 격차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가 제공되는 가장 최소의 공간단위인 집계구를 분석의 공간단위로 설정
 - 집계구는 통계청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최소 통계구역 단위로, 미국의 Census Tract, 영국의 Output Area와 유사한 개념의 통계적 공간단위
 - 약 300세대 내외의 비교적 균질한 물리적 환경을 가진 등질지역으로 구성되며,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바탕으로 소지역 단위로 인구, 주택, 고용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
- 2018년 기준 수원시의 집계구는 총 2,425개로 행정동별 평균 50개 내외로 구성
 - 다만 10가구 미만 거주 또는 비주택 유형만 존재하는 집계구는 비거주 지역으로 분류하여 제외하고 2,324개 집계구를 대상으로 분석 진행

2) 분석지표

- 수원시 도시공간 유형화의 지표로 통계청의 ‘살고싶은 우리동네’에서 제공하는 32개 근린환경지표 중 집계구별 데이터의 구축이 가능한 18개 근린환경 지표를 활용
 - 통계청의 ‘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는 새로운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려는 사람에게 대상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을 추천하기 위한 서비스로, 우리나라 사람이 중점을 두고 고려하는 근린주거환경 요소들을 선별하여 제공
 - 주거환경 특성은 주택가격을 매개로 하여 교육·상업·교통 접근성 등 지역적 특성 및 사회적 계층성 인식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역특성을 구분하기에 적합한 요소로 판단
- 분석시점은 구득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집계구 단위 데이터를 구축

1 이 장은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수원시정연구원의 자료와 분석결과 일부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 인구 및 주택 관련 지표는 집계구 단위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 단 공시지가는 수 원시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삽(interpolation)하여 집계구별 평균을 산출
- 생활·편의·교통 등의 근린 주거환경 관련 지표는 집계구의 중심점(centroid)을 기준으로 반경 400m 이내 포함되는 해당시설 수를 계산²
- 복지·문화·교육 등의 광역 주거환경 요소는 집계구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1.5km 이내의 시설 수를 계산하여 할당

[표 1] 수원시 도시공간 유형화를 위한 지표 구축

| 분류 | 지표 | 기 준 | 구축방법 | 기준연도 |
|----------------|------------|---------------------------------|--------------------------|------|
| 주택 | 공동주택 비율 | 총주택 중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비율 | 집계구 데이터 | 2017 |
| | 주택당 평균면적 | 주택별 평균 면적 | | 2017 |
| | 노후주택 비율 | 건축연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비율 | | 2017 |
| | 자가점유 비율 | 지역 총주택 중 자가점유 주택의 비율 | | 2010 |
| | 공시지가 |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삽하여 집계구 평균 산출 | 2018 |
| 인구 | 청장년인구 비율 | 지역 총인구 중 15-64세 인구의 비율 | 집계구 데이터 | 2017 |
| | 혈연가구 비율 | 지역 총가구 중 2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 | | 2017 |
| | 대졸이상 인구 비율 | 지역 총인구 중 대학졸업 이상 인구의 비율 | | 2010 |
| 생활 편의 교통 | 편의시설 수 | 공공기관(주민센터, 사구청, 파출소, 소방서), 은행 수 | 반경 400m 이내 해당시설의 수 | 2018 |
| | 쇼핑시설 수 | 대규모 점포 및 휴게음식점(편의점) 수 | | 2018 |
| | 외식시설 수 | 일반음식점 수 | | 2018 |
| | 대중교통 접근성 | 정차버스 노선 수 | | 2018 |
| 복지 문화 | 보육복지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 반경 1.5km 이내 해당시설의 수 | 2018 |
| | 보건복지 | 병원, 약국, 의원 수 | | 2018 |
| | 노인복지 | 노인복지시설 수 | | 2018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시설 수 | | 2018 |
| | 문화체육시설 |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종합체육시설 등의 수 | | 2018 |
| 교육 | 학원수 | 교육서비스업 수 | | 20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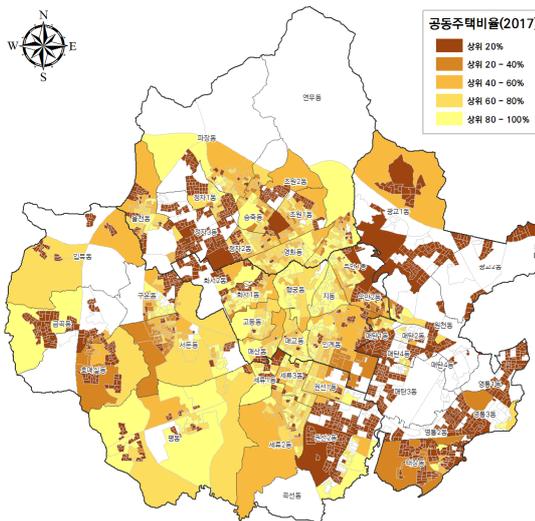
² 근린 주거환경에서 활용된 반경 400m는 도보로 이동가능 한 범위(10분)로 Perry의 근린주구이론에서 제시한 근린의 범위에 해당하며, 광역 주거환경에서 활용된 반경 1.5km는 일상생활권에서 제시하는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 범위에 해당

2 수원 도시공간의 주요 지표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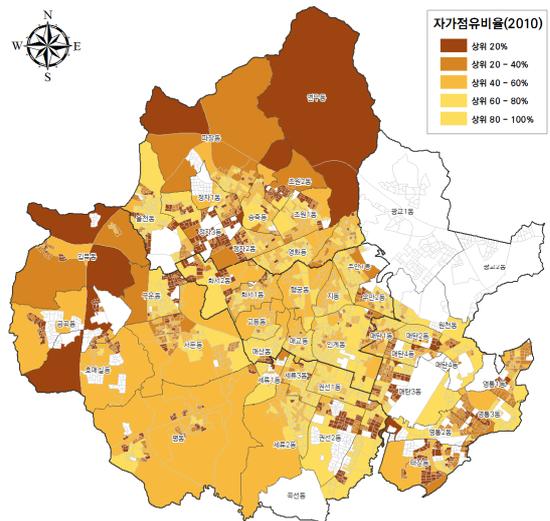
- 도시공간 유형화에 앞서 구축한 주요 근린환경 지표의 공간상 분포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개략적인 도시공간 내부의 특성을 파악
 - 각각의 지표는 지역 간 분포양상과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해당 지표값 순위를 집계구별로 상위부터 20% 단위로 구분하여 표시

1) 주택 관련 지표

- 공동주택 비율은 영통, 정자·천천, 광교, 호매실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팔달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은 낮게 나타남
- 자가점유 비율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과 함께 도시 북서쪽의 외곽지역 역시 높게 나타나는 형태
- 노후주택 비율은 원도심 지역보다 오히려 매탄, 권선지구 등 초기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매탄, 권선 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³
- 공시지가는 인계동, 영통, 광교, 수원역 등 중심상업지역과 주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남동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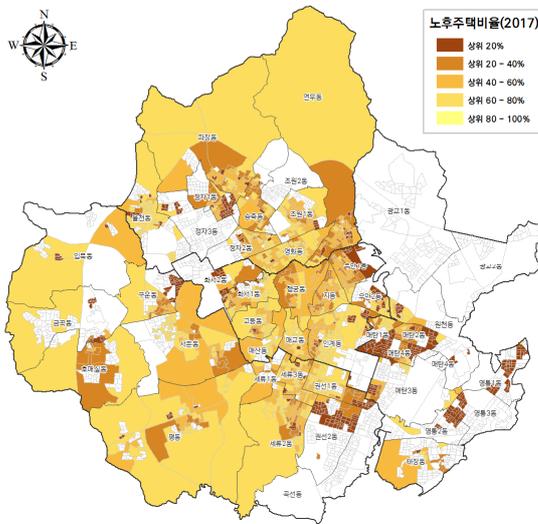


[그림 1] 공동주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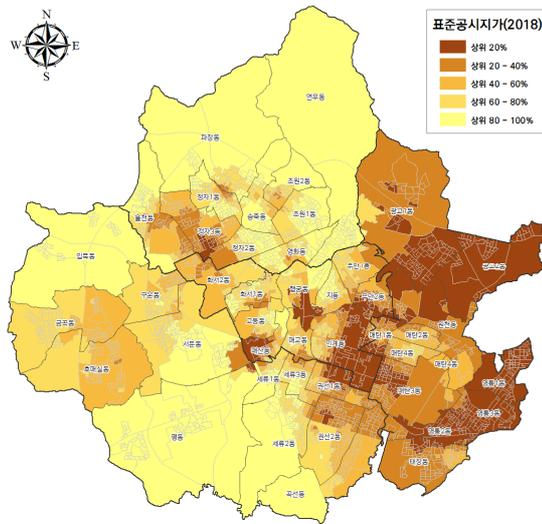


[그림 2] 자가점유 비율

3 각 지표별로 값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0%)는 흰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90년대 이후 개발된 택지지구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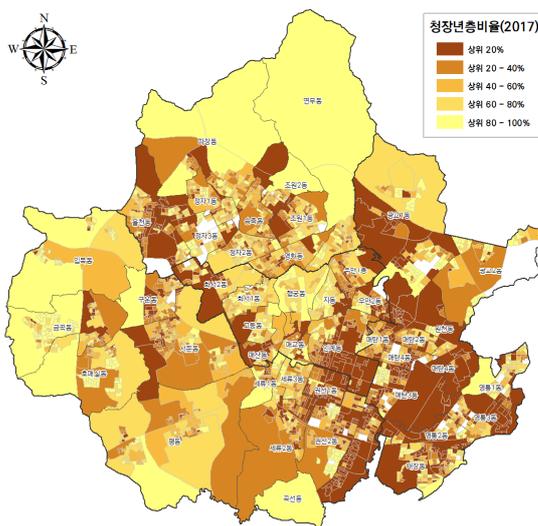
[그림 3] 노후주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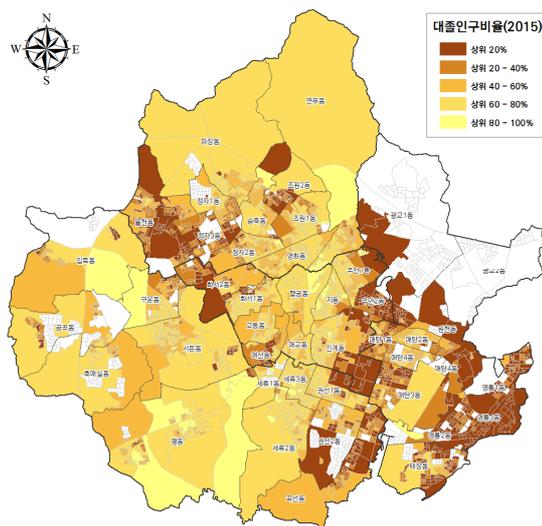
[그림 4] 표준공시지가 분포

2) 인구구성 관련 지표

- 청·장년층 비율은 경수대로 동편에 해당하는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지역과 전철 1호선을 따라 이어지는 주변 지역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
- 대졸인구 비율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과 함께 성균관대, 경기대, 아주대 등 대학 주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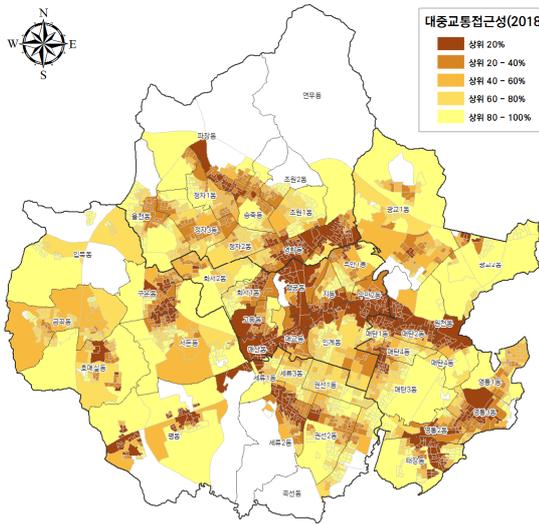
[그림 5] 청·장년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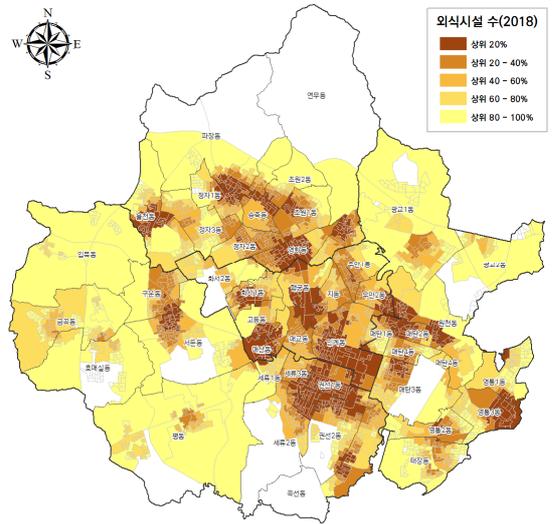
[그림 6] 대졸이상 인구 비율

3) 생활·편의시설 관련 지표

- 대중교통 접근성은 화성행궁을 둘러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로는 42번 국도, 남-북으로는 정조로를 주요 축으로 한 형태의 선형구조를 보임
- 외식시설 수의 경우 인계-권선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생활권별 상업중심지역 위주로 높게 나타나는 형태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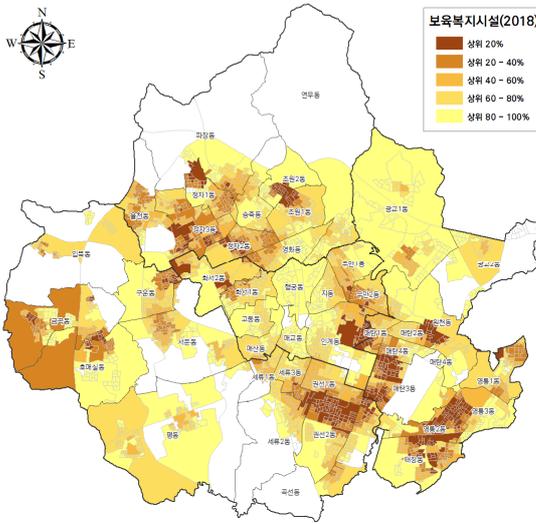
[그림 7] 대중교통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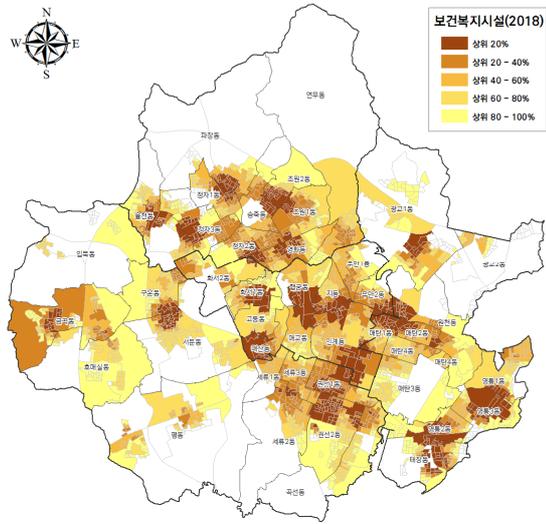
[그림 8] 외식시설 수

4) 복지·문화·교육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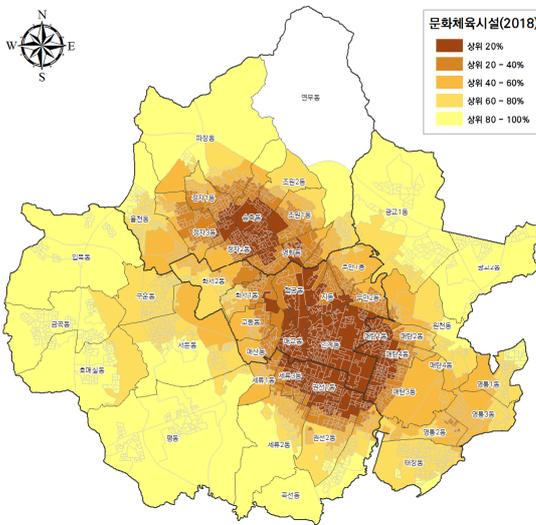
- 보육시설 수는 매탄, 영통, 권선, 천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대단지 아파트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는 양상
- 보건복지시설 수는 앞서 외식시설 수 분포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병원, 약국 등이 주로 지역 내 상업지역에 분포한다는 점에서 대체적인 상권 위치를 반영
- 문화·체육시설 수는 크게 두 개의 핵이 나타나는데, 원도심과 인계동으로 이어지는 도심의 핵은 문화시설을, 송죽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다른 핵은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의 입지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원 수는 정자·천천지구, 매탄지구, 영통지구의 세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중심지역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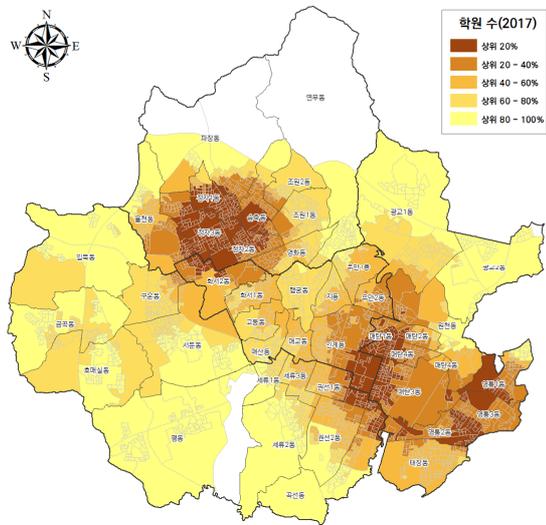
[그림 9] 보육시설 수



[그림 10] 보건복지시설 수



[그림 11] 문화체육시설 수



[그림 12] 학원 수

3 수원시 내부공간의 유형화

1) 요인생태학을 활용한 도시내부 지역 구분

- 수원 내부공간을 유사한 속성을 가진 지역집단으로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생태학 (factoral ecology)적 접근방법을 활용
 - 요인생태학은 직관적인 변수정의를 지양하고 계량화를 통해 유의미한 요인을 도출하여 사회지역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도시 내부의 계층 간 분포 패턴을 귀납적으로 식별(신정엽, 2007)
 - 특정 집단 또는 환경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하게 하여 도시 내부의 구조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사례지역 선정의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18개의 주거환경 지표를 바탕으로 SPSS를 이용한 요인분석(주성분분석)을 통해 수원시 전체 집계구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
 - 18개의 지표들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소수의 핵심성분으로 축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유형 구분을 보다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 3가지 성분으로 수를 제한하였으며, 이 때 전체 지표에 대한 설명력은 52.9%임
 - 3가지 성분으로는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집계구와 비거주지역으로 분류하여 분석에서 제외한 집계구를 합쳐 별도의 4유형으로 추가 분류

2) 수원시 내부공간의 유형 구분

- 분석결과에 따른 수원시 내부공간의 네 가지 유형별 특징과 공간상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유형 1 : 원도심형 근린

- 노인복지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수, 문화체육시설 수, 노후주택 비율, 외식시설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높으며, 공시지가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표적 특성을 가짐
- 팔달구를 중심으로 장안구, 권선구의 일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시설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원도심형 근린지역으로 유형화

- 화성행궁 주변의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넓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집계구 수 기준으로 수원시 전체의 28.5%에 해당

나. 유형 II : 신도시형 근린

- 공동주택 비율, 혈연가구 비율, 자가점유 비율, 보육복지시설 수, 학원 수는 타 지역에 비해 높으며, 주택당 평균면적, 외식시설 수, 쇼핑시설 수, 청장년층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특징
- 원도심 지역에 비해 늦게 개발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중산층 아파트지구의 특성에 주로 해당한다는 점에서 신도시형 근린으로 유형화
- 영통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또는 장안구, 권선구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 지역이 포함되며, 집계구 수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32.2%를 차지

다. 유형 III : 도심서비스형 근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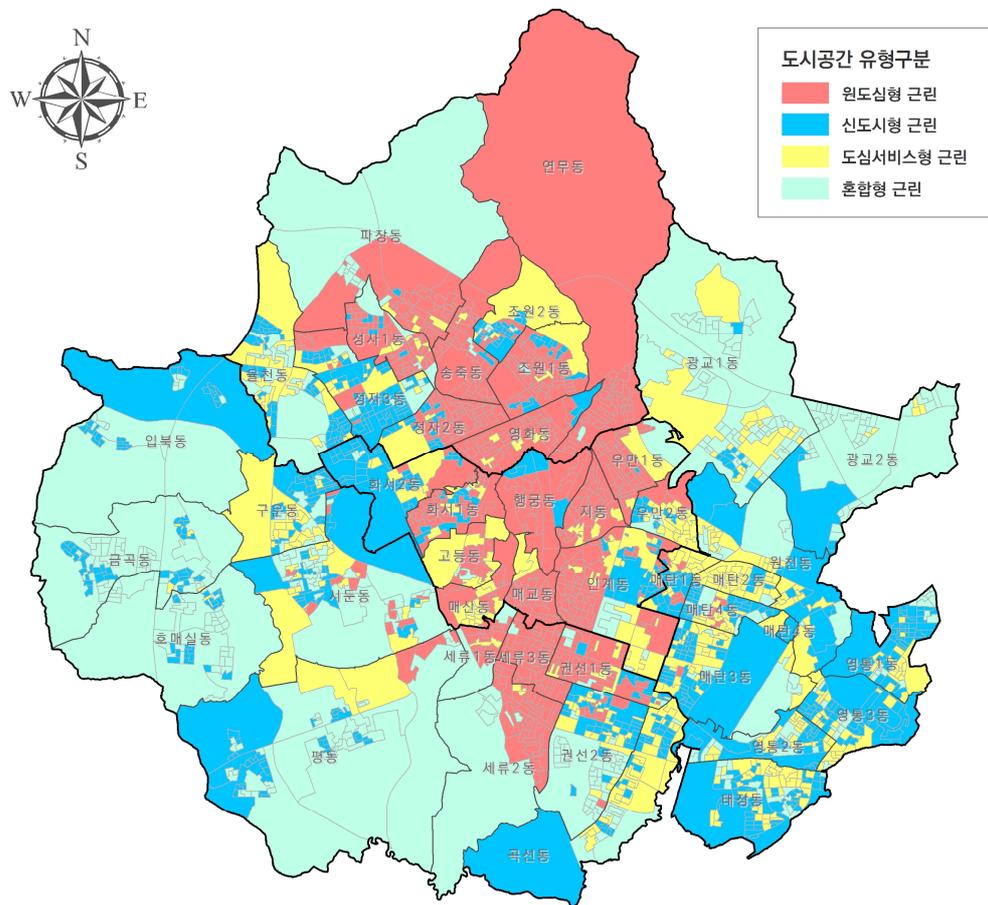
- 보건복지시설 수, 편의시설 수, 외식시설 수, 대졸이상 인구 비율, 쇼핑시설 수, 공시지가, 학원수, 대중교통 접근성, 청장년층 비율, 문화체육시설 수, 보육복지시설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 대부분의 문화 및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높은 지가와 고학력 청장년층 중심의 인구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도심 및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서비스형 근린으로 유형화
- 도심부 이외에 원도심 및 신도시형 근린과 인접해 다수의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집계구 수 기준으로 20.0%를 차지

라. 유형 IV : 혼합형 근린

- 타 지역과 구분되는 특성이 드러나지 않거나 비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유형
- 광교신도시와 호매실 지구의 경우 분석지표의 일부가 2010~2015년 기준 자료라는 점에서 최근의 지역특성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대부분 혼합형 근린으로 분류
 - 광교와 호매실의 입주완료에 따른 주민특성 변화와 상권 형성을 고려하면 현재는 상당수 지역이 신도시형 또는 도심서비스형 근린으로 변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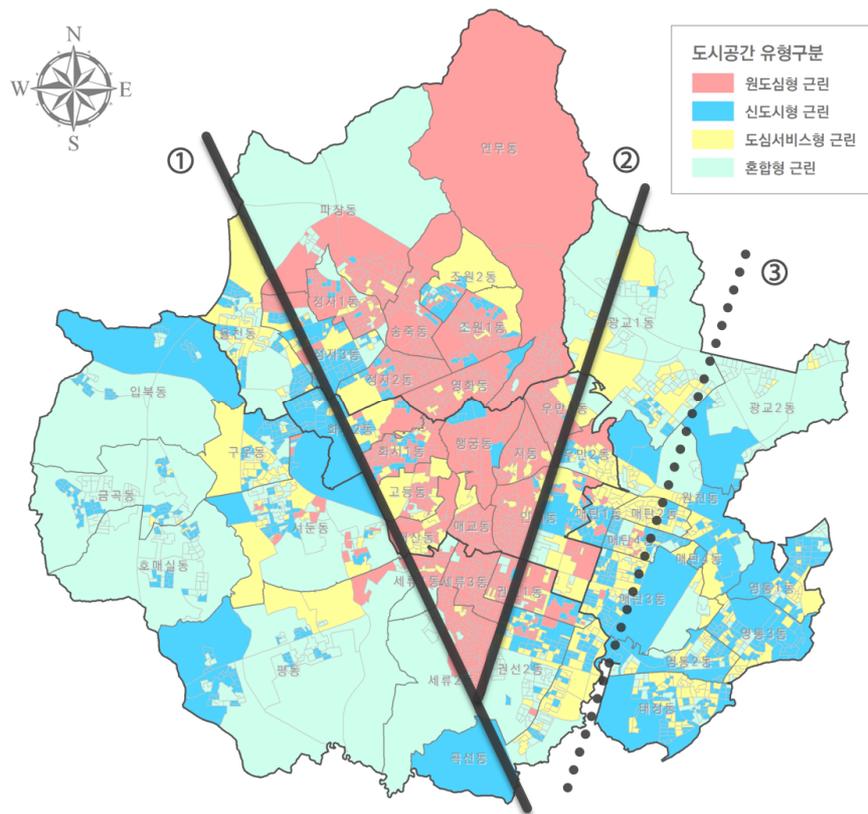
[표 2] 수원시 도시공간의 유형과 특성

| 유형구분 | | 관련지표(+) | 관련지표(-) |
|------|-----------|---|-----------------------------------|
| I | 원도심형 근린 | 노인복지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수, 문화체육시설 수, 노후주택 비율, 외식시설 수 | 공시지가 |
| II | 신도시형 근린 | 공동주택 비율, 혈연가구 비율, 자가점유 비율, 보육복지시설 수, 학원수 | 주택당 평균면적, 외식시설 수, 쇼핑시설 수, 청장년층 비율 |
| III | 도심서비스형 근린 | 보건복지시설 수, 편의시설 수, 외식시설 수, 대졸이상 인구 비율, 쇼핑시설 수, 공시지가, 학원수, 대중교통 접근성, 청장년층 비율, 문화체육시설 수, 보육복지시설 수 | - |
| IV | 혼합형 근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 주민이 거의 살지 않는 비거주 지역 | |



[그림 13] 수원시 도시공간의 유형 구분

- 수원의 도시 내부공간은 남북 방향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망을 기준으로 분화하면서 남-북 방향으로 지역 간 동질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동-서 방향으로 이질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수원시 도시공간의 유형별 입지는 경부선 철도([그림 14]의 ①번 축선)와 광고산~경수대로([그림 14]의 ②번 축선)로 이어지는 사선 형태의 두 축선이 역y자 형태로 교차하여 명확한 지역 유형간 경계를 형성
 - 광고산~경수대로([그림 14]의 ②번 축선) 동편 지역은 신도시형 근린과 도심서비스형 근린이 혼재된 형태의 상대적으로 유사한 지역이지만, 동탄원천로([그림 14]의 ③번 축선)를 보조축선으로 동-서 지역을 다시 구분 가능
- [그림 13]과 [그림 14]를 통해 현재 수원의 도시공간의 양상은 행정구역 단위, 특히 행정구 단위의 지역 구분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
 - 특히 권선구와 팔달구 지역은 동일 행정구 내에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그림 14] 수원시 도시공간 구분의 주요 축선

3) 지역유형간 지표별 격차

- 도시공간 유형 구분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지역으로 구분된 3가지 유형에 대해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1차적인 지역 간 차이와 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인구와 면적에 있어 인구는 신도시형 근린지역이 가장 많은 반면, 면적은 원도심형 근린지역이 가장 넓어 인구밀도에 있어 두 지역 간 2배 이상의 차이 발생
 - 이는 공동주택 비율에서도 나타나듯이 신도시형 근린지역은 대부분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것임
- 노후주택 비율은 원도심형 근린이 60%에 가까운 반면, 신도시형 근린과 도심서비스형 근린은 그 절반 정도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큰 편임
- 공시지가의 경우 도심부와 상업지역에 주로 위치한 도심서비스형 근린이 m^2 당 207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원도심형 근린이 139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도심서비스형 근린은 그 특성상 중심상업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가를 형성
- 원도심형 근린과 신도시형 근린은 노인 1인가구 비율, 대졸이상 인구 비율 등 인구특성에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음
 - 특히 전체 가구 대비 노인 1인가구 비율은 원도심형 근린이 5.6%로 신도시형 근린의 7배에 달하는 반면, 대졸이상 인구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침
 -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오히려 신도시형 근린이 낮고 원도심형 근린이 높는데, 이는 신도시형 근린이 가족 단위의 거주지역이라는 점의 영향으로 보임
 - 청장년층 비율 역시 노인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원도심형 근린보다 신도시형 근린지역이 미세하게나마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신도시형 근린이 가족단위 거주 위주로 청소년 인구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
- 요약하자면, 원도심형 근린은 낮은 지가와 높은 주택노후도, 높은 노인인구 비율 등이 나타나는 반면, 신도시형 근린은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방식으로 지역유형간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차별화와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노후주택 비율 등 상당수의 도시 쇠퇴와 관련된 지표 및 인구구조에서 부정적 지표들이 원도심형 근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도심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

[표 3] 지역유형별 주요 지표 비교

| 지 표 | 원도심형 근린 | 신도시형 근린 | 도심서비스형 근린 |
|---------------------------|--------------------|--------------------|--------------------|
| 인구 (명) | 327,367 (29.0%) | 389,679 (34.5%) | 230,748 (20.4%) |
| 면적 (km ²) | 23.36 (22.0%) | 11.96 (11.3%) | 14.64 (13.8%) |
| 인구밀도 (명/km ²) | 14,014.0 | 32,581.6 | 15,761.5 |
| 공동주택 비율 (%) | 68.8 | 99.8 | 71.8 |
| 노후주택 비율 (%) | 59.8 | 30.7 | 32.7 |
| 평균 공시지가 (천원/㎡) | 1,390.56 | 1,789.70 | 2,073.53 |
| 청장년층 비율 (%) | 75.8 | 75.2 | 80.6 |
| 대졸이상 인구 비율 (%) | 28.6 | 42.5 | 42.7 |
| 노인 1인가구 비율 (%) | 5.6 | 0.8 | 2.3 |
| 청년 1인가구 비율 (%) | 9.3 | 2.4 | 19.5 |

*비율 지표는 해당지역 유형에 속하는 개별 집계구별 비율값의 평균으로 계산

Ⅲ. 도시공간의 격차와 공공서비스의 격차 : 접근성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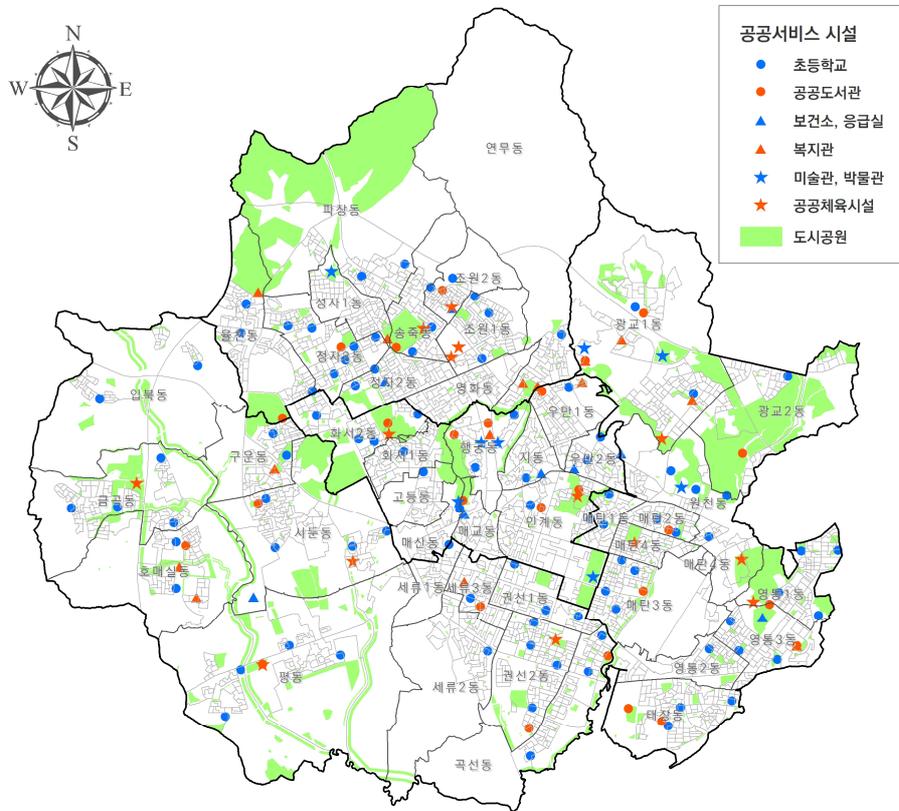
1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이용한 도시공간의 격차 측정

- 공간상의 격차 문제는 결과적 평등이 아닌 기회의 지리학 차원에서 지역 및 주민 역량을 제한하는 기회의 불균등한 제공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접근 필요
 - 격차 문제는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와 발전속도의 차이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상이한 지역특성 분포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음
 - 격차해소를 위한 공간 정책은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 기반시설의 물질적 균질성 등 달성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닌, 기회제공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수준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따라서 여기에서는 거주민들에 대한 역량 개발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간적 형평성을 ‘접근성’을 바탕으로 측정하고자 함
 - 공공서비스 제공은 공간상의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이라는 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한 대응영역으로 볼 수 있음
 - 공공서비스 접근성은 수요자 측면에서 공간적 형평성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공간적 형평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Talen and Anselin, 1998; 조대현 외, 2010)
- 접근성은 주요 시설물이나 서비스, 기회 등에 대한 접근 및 기회의 용이성을 측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척도로, 공공시설의 공간적 불평등을 산출하는 핵심지표로 많이 활용(Murray and Wu, 2003; 김현중 외, 2015)
 - 접근성은 기본적으로 특정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동 용이성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거리 내에 포함되는 기회의 크기, 즉 기회의 잠재력을 의미하기도 함(O’Kelly and Horner, 2003)
- 접근성 평가를 위한 공공서비스는 총 3개 영역의 7개 시설을 선정
 -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적 기회의 제공과 삶의 질과 관련한 분야 중 공공이 주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영역을 선정
 -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와 공공도서관, 의료·복지 분야는 보건소·응급의료시설과 3대 복지관, 문화·여가 분야는 미술관·박물관, 체육시설, 도시공원을 선택

[표 4] 격차 측정을 위한 주요 공공서비스 유형

| 영역 | 유형 | 기 준 | 출처 |
|-----------|-------------|-----------------------------|--|
| 교육 | 초등학교 | 관내 소재한 초등학교 전체 | 경기데이터드림 (https://data.gg.go.kr) |
| | 공공도서관 | 관내 소재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 |
| 의료 ·복지 |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 관내 소재한 보건소 및 응급의료센터 | 수원시 내부자료 |
| | 복지시설 | 관내 소재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
| 문화 ·여가 | 미술관, 박물관 | 관내 소재한 공공 미술관 및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 경기데이터드림 (https://data.gg.go.kr) |
| | 공공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 중 구기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 |
| | 도시공원 | 도시공원 지정 현황 | 수원시 내부자료 |



[그림 15] 수원시 공공서비스 시설 유형별 분포 현황

- 공공서비스 접근성은 두 지점 간의 최소거리인 유클리디언 거리를 활용한 최소거리 (minimum distance) 접근방법을 통해 평가
 - 최소거리 방식은 다양한 접근성 평가 방식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시적인 지역의 접근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공서비스 시설의 주소를 기반으로 지오코딩(geocoding)해 공간상에 배치한 후 각 집계구의 중심점과 공공서비스 시설간의 최소 직선거리를 산출
- 도시공원의 경우 면(polygon)으로 구성된 특징을 고려해 집계구 중심점에서 최근근의 도시공원 경계까지의 최소거리를 산출

2 지역 유형에 따른 공공서비스 접근성 비교

- 앞서 구분한 수원시 도시공간 유형구분에 기반해 각 유형에 속하는 집계구의 공공서비스 최소 도달거리를 산정하여 각 지역 유형별 평균거리와 중위거리를 산출
 - 집계구간 면적 차이로 인해 일부 대형 집계구의 접근성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거리와 중위거리를 모두 구해 비교
- 혼합형 근린의 경우 면적이 매우 넓은 비거주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치상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3개 지역 유형을 중심으로 비교
 - 혼합형 근린은 실제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도심 지역에 주로 입지하는 공원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타 유형에 비해 모두 열악

1) 교육시설 접근성

- 초등학교 접근성은 신도시형 근린이 평균거리 270.3m로 가장 양호하였으며, 원도심형 근린이 387.1m로 가장 낮은 수준임
 - 신도시형 근린 지역의 경우 주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인구밀도 및 학령 인구가 많으며, 개발 단계부터 학교시설 배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양호한 접근성을 보임
-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초등학교와는 반대로 원도심형 근린 지역이 평균거리 680.5m로 가장 양호하며, 신도시형 근린이 825.4m로 가장 열악함
 - 다만 중위거리의 경우에는 원도심형 근린이 652.5m, 신도시형 근린이 679.8m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신도시형 근린에 속하는 일부 집계구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점에서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타 공공서비스에 비해 지역 유형간 접근성의 격차가 거의 없도록 공간적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도심서비스형 근린은 초등학교와 공공도서관 접근성 모두에서 원도심형 근린과 신도시형 근린의 중간 정도 접근성을 보임

2) 보건·복지시설 접근성

- 보건소, 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원도심형 근린지역이 평균거리 1,153.6m로 가장 양호한 편이며, 신도시형 근린이 1,713.1m로 가장 열악
- 복지시설의 경우 원도심형 근린이 927.9m로 타 지역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 지역 유형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 다른 시설의 경우 도심서비스형 근린이 대체로 원도심형 근린과 신도시형 근린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접근성을 보이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신도시형 근린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접근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

3)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 도시공원의 접근성은 신도시형 근린이 114.7m로 가장 양호한 편이며, 원도심형 근린이 144.6m로 가장 낮은 수준임
-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원도심형 근린이 신도시형 근린과 도심서비스형 근린에 비해 약간 양호하긴 하지만 그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음
 - 공공체육시설은 다른 서비스 유형과 비교할 때 지역 유형별 접근성의 차이가 가장 적은 공공서비스에 해당
- 공공문화시설은 전체 비교대상 공공서비스 중 가장 지역 유형간 격차가 큰 시설로 원도심형 근린의 접근성이 타 지역 유형에 비해 큰 차이로 높은 수준을 보임
 -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원도심형 근린의 평균거리가 1,245.6m인 것에 비해, 도심서비스형 근린의 평균거리는 1,700m, 신도시형 근린의 평균거리는 2,300m에 달하고 있음
 - 이는 공공문화시설의 수 자체가 타 서비스에 비해 적는데다가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등 상당수 시설이 공간적으로 원도심 근린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 실제 [그림 14]의 ①번 축선 서쪽과 ③번 축선 동쪽에는 공공문화시설이 전혀 입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 지역의 상당부분이 신도시형 근린에 해당

[표 5] 지역유형별 공공서비스 접근성

(단위: m)

| 구분 | | 원도심형 근린 | | 신도시형 근린 | | 도심서비스형 근린 | | 혼합형 근린 | |
|-------|-------------|---------|---------|---------|---------|-----------|---------|---------|---------|
| | | 평균거리 | 중위거리 | 평균거리 | 중위거리 | 평균거리 | 중위거리 | 평균거리 | 중위거리 |
| 교육 | 초등학교 | 387.1 | 378.4 | 270.3 | 247.4 | 342.6 | 325.7 | 466.9 | 419.4 |
| | 공공도서관 | 680.5 | 652.5 | 825.4 | 679.8 | 756.4 | 702.2 | 1,025.6 | 935.2 |
| 의료·복지 | 보건소, 응급의료센터 | 1,153.6 | 1,086.3 | 1,713.1 | 1,567.0 | 1,574.0 | 1,520.2 | 2,196.7 | 2,127.4 |
| | 복지시설 | 927.9 | 917.0 | 1,619.3 | 1,513.9 | 1,521.4 | 1,511.6 | 1,436.9 | 1,389.2 |
| 문화·여가 | 도시공원 | 144.6 | 135.0 | 114.7 | 101.0 | 127.3 | 105.0 | 126.8 | 98.0 |
| | 공공체육시설 | 1,093.3 | 1,095.3 | 1,171.4 | 1,029.8 | 1,144.2 | 956.9 | 1,423.7 | 1,295.7 |
| | 공공문화시설 | 1,245.6 | 1,223.5 | 2,300.8 | 2,059.3 | 1,700.9 | 1,374.5 | 2,683.7 | 2,305.9 |

4) 종합

-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주요 서비스별로 지역유형에 따른 접근성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하나의 경향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 원도심형 근린은 의료시설, 복지시설, 공공문화시설의 접근성에 있어서 타 지역 유형에 비해 양호한 여건
 - 신도시형 근린은 초등학교, 도시공원의 접근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
 - 공공도서관과 공공체육시설은 접근성의 측면에서 지역 유형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에 해당
-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평가에 있어 대부분의 서비스 유형에서 원도심형 근린과 신도시형 근린이 서로 양극점을 형성하는 가운데, 도심서비스형 근린이 중간적 특성을 보이는 형태
- 일반적으로 원도심 지역이 신도시 지역에 비해 노후하고 낙후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도 열악할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실제 결과에서는 다수 지표에서 양호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
 - 오히려 아파트 위주의 주거지역으로만 구성된 신도시 지역이 공공문화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다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오히려 열악한 상태

IV. 도시공간 격차 완화를 대응과제 모색

1 격차에 대응하는 공간정책의 방향성 재검토

- 연구 결과에서 기존에 관습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적 격차의 양상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원 내 공간특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확인
- 그동안 수원시의 공간상의 격차는 원도심 vs 신도시 지역의 구도 하에 원도심 지역의 쇠퇴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원에 많은 정책적 관심이 부여
 - 실제 노후주택 비율 등 쇠퇴지표나 인구구성의 측면에서 원도심 지역이 신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은 지표상에서도 잘 드러남
- 하지만 실제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었다는 신도시 지역 역시 상당수 공공서비스에 있어서는 오히려 접근성의 측면에서 열악한 여건에 직면
 - 인구밀집지역인 신도시 지역은 도시 외곽에 주로 형성되는 반면, 상당수의 공공 시설이 대부분 지리상 중앙에 해당하는 기존 도심지역에 밀집되면서 오히려 신도시 지역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
 - 특히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에 있어서는 신도시 지역이 원도심 지역에 비해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의 다양화 방안 모색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제외한 단순 물리적 거리에 따른 접근성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의 높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시
 - 다만 원도심 지역의 경우 거리에 따른 접근성은 높더라도 시설 자체의 노후화나 규모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차원의 공공서비스 관련 문제를 노출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신도시 지역은 신규 시설입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의 문제를, 원도심 지역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협소화에 따른 질적 개선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개선의 접근이 필요
- 도시공간 상의 격차의 문제와 이에 따른 시민들의 역량 개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공간적 형평성에 있어서 단순한 형태적 균질성이 아닌,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약한 고리를 강화해 주는 방식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의도적인 공간

적 불균등성도 경우에 따라 필요

- 지역 간의 차이를 반영한 공간적 이질성과 공간상의 격차를 구분해야 하듯이, 공간적 형평성을 단순히 물리적 차원의 획일적인 공간 배분으로 접근할 수 없음
 - 지역 간 유형화 과정에서 여러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차이가 드러난 여건에서 지역유형 간의 획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의 현재적 양상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 초래
 - 공간적 형평성은 오히려 공간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지역을 보다 지원하는 등의 의도적인 물리적 불균등성이 필요하기도 함
- 도시공간의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일률적 배치를 위주로 한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정책의 방향 모색 필요
- 공공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 공간상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고 재생산되지 않도록 공간특성과 체계를 재편하여 사회 전체의 역량과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2

도시공간 격차의 구체적 양상과 원인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 진행

- 본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던 수원 도시공간 격차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초현황 검토와 1차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
- 수원시의 공간상에 나타나는 격차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필요
 - 여기에서는 예비적 연구로 일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단순 최소거리를 기준으로 접근성을 평가하였지만, 공간적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
 - 접근성 역시 최소거리 방식이 아닌 도로와 교통수단 등을 반영한 네트워크 접근성이나 서비스의 도달거리와 거리에 따른 가중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방식이 필요
 - 또한 공공서비스 시설의 질적 수준과 유형에 대한 적절성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도시공간 상의 격차의 구체적인 양상을 밝힐 수 있음

- 격차 발생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들과 격차 확대의 과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탐색과 분석 필요
 - 정책적 대응방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히 현 상태에서 공간상에 발현되어 있는 격차의 양상을 밝히는 것 뿐만 아니라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들과 격차 확대의 과정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분석이 필요
 -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시적 관점의 논의가 아닌, 격차의 양상과 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수원시의 사회·공간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필요
 - 또한 격차의 양상 변화를 추적·분석하기 위한 도시 데이터의 구축과 통합적 관리를 통한 분석능력 제고 역시 필요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현중·이종길·여관현, 2015,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와 결정요인, 서울도시연구, 16(4), 109-127
- 이경영·정주희·전희정, 2018, 서울시 강남강북권 간 지역격차 주거특성이 주민의 사회적 지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31(1), 77-100
- 이규환·서승제, 2009, 서울시 자치구간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357-381
- 이도선·노인만·윤기찬, 2008, 지역격차에 관한 실증적 분석모델 개발, 한국지방자치연구, 10(3), 25-51
- 이성호, 2019a,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이성호, 2019b, 수원시 주거분화 특성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장영호, 2015,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 31개 시군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29(1), 99-125
- 전보애, 2014, 지역규모에서 공공도서관의 공간접근성 분석: 강원도를 사례로, 한국지도학회지, 14(1), 93-105
- 조대현·신정엽·김감영·이건학, 2010, 농촌지역 공공 보건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2), 137-153
- 황규성, 2012, 한국의 격차 재생산 구조화: 틀과 사회적 성격, 동향과 전망, 85, 164-188

〈영문 자료〉

- Murray, A. T. and Wu, X., 2003, Accessibility tradeoffs in public transit planning, *Journal of Geographical Systems*, 5, 93-107
- O'Kelly, M. E. and Horner, M. W., 2003, Aggregate accessibility to population at the county level: U.S. 1940-2000, *Journal of Geographical Systems*, 5, 5-23
- Powell M., Boyne G. and Ashworth R.(2001), Towards a geography of people poverty and place poverty, *Policy & Politics*, 29(3), 243-258
- Talen, E. and Anselin, L., 1998, Assessing spatial equity: an evaluation of measures of accessibility to public playground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 595-613
- Venables, A. V., 2005, Regional Disparities in Regional Blocs: Theory and Policy, Prepared for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Project

□부록□ 행정구역 기준 수원시 지역유형 구분과 격차 분석

1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 현재의 행정체계를 고려해 행정구별 도시공간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팔달구는 원도심형 근린의 특성을, 영통구는 신도시형 근린의 특성을 각각 명확하게 드러냄
 - 팔달구는 원도심형 근린의 비율이 56.0%에 달하는 반면, 영통구는 불과 1.1%에 해당하는 8개 집계구만이 원도심형 근린에 해당
 - 반면 영통구는 신도시형 근린이 39.8%, 도심서비스형 근린이 34.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신도시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면 현시점 기준으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화됐을 것으로 예상
 - 장안구와 권선구는 두 지역의 중간에 해당하는 혼합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장안구는 팔달구에 가까운 분포를, 권선구는 영통구에 가까운 분포를 보임
- 오히려 행정동의 경우에는 구 단위 구분에 비해 동별로 지역유형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으로, 특히 원도심형 근린 지역의 경우 동 전체가 동질한 지역의 특성을 보임
 - 원도심형 근린이 중심이 되는 동의 경우 행정동 내부 집계구 대부분이 타 유형과 거의 혼재되지 않은 채 같은 원도심형 근린 유형으로 분류
 - 신도시형 근린지역이 중심이 되는 동은 행정동 내부에 도심서비스형 근린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혼재되어 있음

[표 6] 행정동별 우세 지역유형 구분

| 구 분 | 원도심형 근린지역 | 신도시형 근린지역 | 도심서비스형 근린지역 | 혼합형 근린지역 |
|-----|--------------------------------------|---|-------------|----------------------|
| 장안구 | 송죽동, 연무동, 영화동, 정자1동, 정자2동, 조원1동, 파장동 | 울천동, 정자3동, 조원2동 | - | - |
| 권선구 | 권선1동,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 곡선동, 구운동, 입북동, 평동 | - | 권선2동, 금곡동, 서둔동, 호매실동 |
| 팔달구 | 고등동, 매교동, 우만1동, 인계동, 지동, 행궁동, 화서1동 | 화서2동 | 매산동, 우만2동 | - |
| 영통구 | - | 매탄1동, 매탄3동, 매탄4동,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 태장동 | 매탄2동, 원천동 | 광고1동, 광고2동 |

[표 7] 행정동별 지역구분 분포 현황

| 구 분 | 계 | 원도심형 근린 | | 신도시형 근린 | | 도심서비스형 근린 | | 혼합형 근린 | |
|--------|-------|---------|--------|---------|-------|-----------|-------|--------|-------|
| | 집계구 | 집계구 | 비율 | 집계구 | 비율 | 집계구 | 비율 | 집계구 | 비율 |
| 수원시 전체 | 2,425 | 691 | 28.5% | 782 | 32.2% | 485 | 20.0% | 467 | 19.3% |
| 장안구 | 595 | 307 | 51.6% | 177 | 29.7% | 61 | 10.3% | 50 | 8.4% |
| 송죽동 | 42 | 40 | 95.2% | 1 | 2.4% | 0 | 0.0% | 1 | 2.4% |
| 연무동 | 40 | 39 | 97.5% | 0 | 0.0% | 0 | 0.0% | 1 | 2.5% |
| 영화동 | 43 | 38 | 88.4% | 0 | 0.0% | 5 | 11.6% | 0 | 0.0% |
| 울천동 | 86 | 0 | 0.0% | 47 | 54.7% | 22 | 25.6% | 17 | 19.8% |
| 정자1동 | 70 | 51 | 72.9% | 8 | 11.4% | 7 | 10.0% | 4 | 5.7% |
| 정자2동 | 63 | 42 | 66.7% | 20 | 31.7% | 1 | 1.6% | 0 | 0.0% |
| 정자3동 | 93 | 2 | 2.2% | 67 | 72.0% | 16 | 17.2% | 8 | 8.6% |
| 조원1동 | 63 | 48 | 76.2% | 13 | 20.6% | 1 | 1.6% | 1 | 1.6% |
| 조원2동 | 43 | 12 | 27.9% | 20 | 46.5% | 6 | 14.0% | 5 | 11.6% |
| 파장동 | 52 | 35 | 67.3% | 1 | 1.9% | 3 | 5.8% | 13 | 25.0% |
| 권선구 | 728 | 157 | 21.6% | 236 | 32.4% | 105 | 14.4% | 230 | 31.6% |
| 곡선동 | 60 | 0 | 0.0% | 27 | 45.0% | 23 | 38.3% | 10 | 16.7% |
| 구운동 | 58 | 0 | 0.0% | 29 | 50.0% | 19 | 32.8% | 10 | 17.2% |
| 권선1동 | 52 | 29 | 55.8% | 8 | 15.4% | 13 | 25.0% | 2 | 3.8% |
| 권선2동 | 107 | 10 | 9.3% | 32 | 29.9% | 24 | 22.4% | 41 | 38.3% |
| 금곡동 | 84 | 0 | 0.0% | 37 | 44.0% | 4 | 4.8% | 43 | 51.2% |
| 서둔동 | 80 | 10 | 12.5% | 21 | 26.3% | 16 | 20.0% | 33 | 41.3% |
| 세류1동 | 21 | 20 | 95.2% | 0 | 0.0% | 1 | 4.8% | 0 | 0.0% |
| 세류2동 | 50 | 41 | 82.0% | 0 | 0.0% | 2 | 4.0% | 7 | 14.0% |
| 세류3동 | 46 | 46 | 100.0% | 0 | 0.0% | 0 | 0.0% | 0 | 0.0% |
| 입북동 | 37 | 0 | 0.0% | 26 | 70.3% | 0 | 0.0% | 11 | 29.7% |
| 평동 | 74 | 1 | 1.4% | 36 | 48.6% | 2 | 2.7% | 35 | 47.3% |
| 호매실동 | 59 | 0 | 0.0% | 20 | 33.9% | 1 | 1.7% | 38 | 64.4% |
| 팔달구 | 391 | 219 | 56.0% | 86 | 22.0% | 75 | 19.2% | 11 | 2.8% |
| 고등동 | 21 | 16 | 76.2% | 0 | 0.0% | 4 | 19.0% | 1 | 4.8% |
| 매교동 | 21 | 21 | 100.0% | 0 | 0.0% | 0 | 0.0% | 0 | 0.0% |
| 매산동 | 22 | 7 | 31.8% | 0 | 0.0% | 15 | 68.2% | 0 | 0.0% |
| 우만1동 | 46 | 43 | 93.5% | 1 | 2.2% | 1 | 2.2% | 1 | 2.2% |
| 우만2동 | 38 | 4 | 10.5% | 12 | 31.6% | 21 | 55.3% | 1 | 2.6% |
| 인계동 | 90 | 49 | 54.4% | 18 | 20.0% | 18 | 20.0% | 5 | 5.6% |
| 지동 | 28 | 24 | 85.7% | 0 | 0.0% | 4 | 14.3% | 0 | 0.0% |
| 행궁동 | 19 | 15 | 78.9% | 0 | 0.0% | 4 | 21.1% | 0 | 0.0% |
| 화서1동 | 50 | 32 | 64.0% | 11 | 22.0% | 6 | 12.0% | 1 | 2.0% |
| 화서2동 | 56 | 8 | 14.3% | 44 | 78.6% | 2 | 3.6% | 2 | 3.6% |
| 영통구 | 711 | 8 | 1.1% | 283 | 39.8% | 244 | 34.3% | 176 | 24.8% |
| 광고1동 | 100 | 0 | 0.0% | 11 | 11.0% | 24 | 24.0% | 65 | 65.0% |
| 광고2동 | 50 | 0 | 0.0% | 4 | 8.0% | 2 | 4.0% | 44 | 88.0% |
| 매탄1동 | 38 | 4 | 10.5% | 22 | 57.9% | 12 | 31.6% | 0 | 0.0% |
| 매탄2동 | 32 | 0 | 0.0% | 4 | 12.5% | 27 | 84.4% | 1 | 3.1% |
| 매탄3동 | 85 | 1 | 1.2% | 46 | 54.1% | 30 | 35.3% | 8 | 9.4% |
| 매탄4동 | 52 | 3 | 5.8% | 33 | 63.5% | 12 | 23.1% | 4 | 7.7% |
| 영통1동 | 77 | 0 | 0.0% | 48 | 62.3% | 20 | 26.0% | 9 | 11.7% |
| 영통2동 | 57 | 0 | 0.0% | 22 | 38.6% | 19 | 33.3% | 16 | 28.1% |
| 영통3동 | 69 | 0 | 0.0% | 36 | 52.2% | 28 | 40.6% | 5 | 7.2% |
| 원천동 | 51 | 0 | 0.0% | 9 | 17.6% | 30 | 58.8% | 12 | 23.5% |
| 태장동 | 100 | 0 | 0.0% | 48 | 48.0% | 40 | 40.0% | 12 | 12.0% |

- 초등학교 접근성은 구별, 동별 접근성의 격차가 다른 공공서비스에 비해 크지 않은 편
 - 구별 평균거리는 10m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공간상에 매우 균등하게 입지
- 공공도서관은 팔달구의 접근성이 가장 높으며, 권선구의 접근성이 가장 낮은 수준
 - 행정동별로는 외곽에 위치한 입북동이 2,709.1m로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열악한 수준이며, 금곡동, 파장동, 율천동 등 시의 서북부 경계 지역에 위치한 동들의 접근성 역시 낮은 수준
 - 이외에 광고1동, 광고2동, 영통2동 등의 신도시 지역 역시 낮은 공공도서관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
-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팔달구가 평균거리 866.1m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양호한 반면, 권선구는 팔달구의 3배에 달하는 2,310.7m에 이른다는데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권선구의 경우 평균거리가 가장 짧은 세류1동조차도 1,124m 수준이며, 입북동의 경우에는 4,000m 이상의 최소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열악
 - 영통구의 경우에도 권선구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동이 1,000~2,000m 수준으로 낮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음
-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장안구가 934.9m로 가장 양호한 반면, 영통구가 1,725.7m로 가장 낮은 수준
- 도시공원은 초등학교와 함께 지역 간 접근성의 차이가 가장 적은 공공서비스로 구별, 동별 격차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
- 반면, 공공문화시설은 의료시설에 이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공공서비스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권선구의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음
 - 구별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팔달구가 1,149m인 반면, 권선구의 평균거리는 3배에 가까운 3,040m임
 - 특히 호매실지구에 해당하는 금곡동과 호매실동은 5,000m가 넘는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공공문화시설 접근성을 보이고 있으며, 영통구의 영통지구(영통1~3동) 역시 평균거리 2,000m 이상으로 접근성이 낮은 편임

[표 8] 행정동별 공공서비스 시설 접근성

(단위: m)

| 구분 | 초등학교 | | 공공도서관 | | 보건소, 응급의료센터 | | 복지시설 | |
|------------|--------------|--------------|--------------|--------------|----------------|----------------|----------------|----------------|
| | 평균거리 | 중위거리 | 평균거리 | 중위거리 | 평균거리 | 중위거리 | 평균거리 | 중위거리 |
| 장안구 | 364.2 | 324.1 | 815.6 | 700.1 | 1,276.0 | 1,158.0 | 934.9 | 950.8 |
| 송죽동 | 322.8 | 304.0 | 573.1 | 564.9 | 740.7 | 770.0 | 850.6 | 822.7 |
| 연무동 | 463.8 | 388.9 | 572.9 | 482.1 | 1,764.5 | 1,753.1 | 533.0 | 440.6 |
| 영화동 | 462.1 | 472.1 | 685.9 | 676.8 | 1,180.2 | 1,203.6 | 873.8 | 921.0 |
| 울천동 | 333.6 | 318.7 | 1,345.4 | 1,348.0 | 2,330.6 | 2,508.9 | 973.5 | 981.0 |
| 정자1동 | 471.5 | 490.9 | 818.8 | 830.0 | 1,465.3 | 1,351.4 | 780.4 | 736.6 |
| 정자2동 | 362.2 | 353.5 | 572.7 | 583.8 | 461.4 | 400.3 | 801.1 | 838.3 |
| 정자3동 | 222.2 | 208.5 | 602.5 | 529.1 | 1,251.0 | 1,158.6 | 877.7 | 905.4 |
| 조원1동 | 305.1 | 292.6 | 972.3 | 1,003.6 | 762.8 | 784.2 | 1,157.6 | 1,166.0 |
| 조원2동 | 255.0 | 247.0 | 259.4 | 245.5 | 333.9 | 324.2 | 1,277.5 | 1,245.7 |
| 파장동 | 564.4 | 391.4 | 1,370.7 | 1,290.1 | 1,845.7 | 1,686.9 | 1,218.5 | 1,215.0 |
| 권선구 | 350.3 | 321.6 | 907.8 | 779.1 | 2,310.7 | 2,127.7 | 1,446.0 | 1,429.4 |
| 곡선동 | 338.0 | 309.6 | 457.4 | 407.0 | 3,542.7 | 3,526.6 | 2,784.5 | 2,720.7 |
| 구운동 | 319.5 | 315.1 | 459.9 | 434.8 | 2,089.7 | 2,096.0 | 496.8 | 527.6 |
| 권선1동 | 275.6 | 246.1 | 824.8 | 831.6 | 2,068.7 | 2,020.8 | 1,465.2 | 1,380.3 |
| 권선2동 | 264.1 | 246.8 | 835.3 | 900.5 | 2,903.4 | 2,900.8 | 1,933.0 | 1,929.5 |
| 금곡동 | 306.1 | 303.7 | 1,419.1 | 1,451.4 | 2,842.1 | 2,811.4 | 1,593.1 | 1,686.0 |
| 서둔동 | 358.5 | 320.6 | 844.4 | 649.2 | 1,624.8 | 1,647.9 | 1,052.6 | 961.9 |
| 세류1동 | 503.6 | 540.8 | 981.5 | 966.7 | 1,124.6 | 1,149.0 | 559.6 | 544.8 |
| 세류2동 | 431.9 | 387.9 | 736.0 | 681.2 | 2,255.2 | 2,239.8 | 1,106.9 | 1,090.5 |
| 세류3동 | 366.1 | 367.3 | 472.7 | 452.8 | 1,333.4 | 1,308.8 | 453.8 | 428.4 |
| 입북동 | 447.5 | 385.6 | 2,709.1 | 2,854.8 | 4,135.2 | 4,232.5 | 2,552.2 | 2,846.7 |
| 평동 | 429.6 | 402.9 | 960.1 | 929.9 | 1,580.2 | 1,554.2 | 1,905.2 | 1,956.8 |
| 호매실동 | 370.6 | 360.9 | 631.7 | 644.6 | 1,590.5 | 1,513.9 | 548.8 | 482.0 |
| 팔달구 | 358.1 | 338.0 | 607.8 | 598.7 | 866.1 | 865.6 | 1,228.7 | 1,261.5 |
| 고등동 | 415.8 | 438.7 | 688.4 | 695.5 | 759.4 | 755.5 | 1,405.0 | 1,408.4 |
| 매교동 | 414.5 | 408.9 | 593.2 | 634.5 | 427.4 | 415.6 | 922.6 | 899.1 |
| 매산동 | 356.0 | 359.5 | 916.1 | 1,028.2 | 779.8 | 850.2 | 959.7 | 923.4 |
| 우만1동 | 449.7 | 458.1 | 543.1 | 564.5 | 977.9 | 971.3 | 602.9 | 602.3 |
| 우만2동 | 266.2 | 257.9 | 633.0 | 640.4 | 303.0 | 323.0 | 1,454.3 | 1,443.2 |
| 인계동 | 388.7 | 392.9 | 578.6 | 566.0 | 901.7 | 873.4 | 1,592.5 | 1,518.4 |
| 지동 | 408.6 | 394.7 | 753.9 | 755.3 | 472.0 | 475.8 | 834.0 | 835.8 |
| 행궁동 | 432.4 | 423.8 | 383.7 | 374.5 | 1,089.4 | 1,086.3 | 500.4 | 462.9 |
| 화서1동 | 311.0 | 300.4 | 608.6 | 586.1 | 1,279.9 | 1,254.6 | 1,510.2 | 1,608.6 |
| 화서2동 | 245.6 | 252.5 | 547.5 | 530.3 | 1,089.5 | 1,089.1 | 1,352.6 | 1,363.9 |
| 영동구 | 353.6 | 307.3 | 812.5 | 761.8 | 1,611.7 | 1,586.3 | 1,725.7 | 1,785.6 |
| 광고1동 | 527.0 | 528.5 | 1,092.6 | 1,219.3 | 1,718.1 | 1,625.4 | 605.3 | 578.1 |
| 광고2동 | 609.8 | 599.1 | 1,265.0 | 1,316.4 | 2,760.1 | 2,633.3 | 1,428.5 | 1,415.5 |
| 매탄1동 | 224.3 | 232.9 | 722.0 | 750.3 | 1,032.7 | 1,011.3 | 2,320.6 | 2,330.7 |
| 매탄2동 | 254.2 | 254.9 | 400.3 | 390.0 | 1,403.0 | 1,379.6 | 2,194.4 | 2,209.2 |
| 매탄3동 | 243.7 | 230.0 | 571.8 | 567.8 | 2,111.5 | 2,165.8 | 2,589.4 | 2,635.3 |
| 매탄4동 | 305.7 | 306.6 | 605.2 | 615.8 | 1,632.4 | 1,660.2 | 2,652.7 | 2,645.5 |
| 영통1동 | 274.1 | 268.4 | 891.5 | 895.5 | 1,119.0 | 1,136.4 | 1,291.3 | 1,340.1 |
| 영통2동 | 375.0 | 306.8 | 1,057.0 | 1,158.2 | 1,405.1 | 1,189.2 | 1,737.2 | 1,511.6 |
| 영통3동 | 267.7 | 264.2 | 715.1 | 726.1 | 684.2 | 664.4 | 870.8 | 924.7 |
| 원천동 | 381.8 | 364.9 | 834.4 | 853.3 | 1,198.1 | 1,288.6 | 1,874.0 | 1,836.0 |
| 태장동 | 345.4 | 338.8 | 641.0 | 595.4 | 2,130.1 | 2,141.6 | 2,244.6 | 2,326.7 |

[표 8] 행정동별 공공서비스 시설 접근성 (계속)

| 구분 | 도시공원 | | 공공체육시설 | | 공공문화시설 | |
|------|-------|-------|---------|---------|---------|---------|
| | 평균 | 중위값 | 평균 | 중위값 | 평균 | 중위값 |
| 장안구 | 149.4 | 124.0 | 1,303.4 | 1,085.3 | 1,421.3 | 1,495.8 |
| 송죽동 | 181.6 | 149.0 | 459.4 | 433.6 | 1,685.8 | 1,670.0 |
| 연무동 | 147.6 | 100.0 | 1,592.1 | 1,596.4 | 795.4 | 703.1 |
| 영화동 | 154.9 | 150.0 | 764.1 | 765.1 | 1,071.7 | 1,063.9 |
| 울천동 | 199.6 | 177.5 | 2,640.6 | 2,774.7 | 1,931.2 | 1,927.9 |
| 정자1동 | 168.5 | 158.0 | 1,325.9 | 1,206.0 | 763.1 | 859.1 |
| 정자2동 | 157.1 | 132.0 | 747.6 | 779.7 | 1,774.4 | 1,802.9 |
| 정자3동 | 86.9 | 84.0 | 1,697.6 | 1,619.0 | 1,406.8 | 1,390.8 |
| 조원1동 | 123.9 | 101.0 | 573.4 | 545.1 | 1,678.0 | 1,647.8 |
| 조원2동 | 156.1 | 148.0 | 315.6 | 303.5 | 2,040.4 | 2,049.5 |
| 파장동 | 139.5 | 123.0 | 1,637.4 | 1,460.0 | 796.5 | 753.1 |
| 권선구 | 122.4 | 105.0 | 1,215.8 | 1,207.9 | 3,040.8 | 2,839.0 |
| 곡선동 | 99.0 | 82.0 | 1,165.9 | 984.9 | 2,127.0 | 2,031.0 |
| 구운동 | 82.4 | 73.5 | 1,909.3 | 1,923.4 | 3,174.3 | 3,099.6 |
| 권선1동 | 97.9 | 103.0 | 859.2 | 768.0 | 1,100.4 | 1,016.4 |
| 권선2동 | 103.8 | 94.0 | 705.1 | 613.7 | 1,844.0 | 1,707.7 |
| 금곡동 | 123.7 | 116.5 | 823.5 | 856.4 | 5,418.6 | 5,391.9 |
| 서둔동 | 122.2 | 113.5 | 1,269.2 | 1,476.3 | 2,796.5 | 2,969.7 |
| 세류1동 | 157.0 | 148.0 | 1,497.9 | 1,466.5 | 1,292.6 | 1,301.4 |
| 세류2동 | 156.6 | 143.0 | 1,550.8 | 1,540.8 | 2,301.0 | 2,324.7 |
| 세류3동 | 165.0 | 155.0 | 1,589.6 | 1,650.8 | 1,521.1 | 1,525.2 |
| 입북동 | 120.3 | 103.0 | 2,101.8 | 2,065.4 | 3,875.0 | 4,159.4 |
| 평동 | 153.9 | 136.0 | 889.2 | 900.8 | 4,259.3 | 4,107.6 |
| 호매실동 | 126.1 | 103.0 | 1,490.1 | 1,552.8 | 5,048.4 | 4,812.9 |
| 팔달구 | 127.2 | 116.0 | 1,019.7 | 1,029.3 | 1,149.0 | 1,100.5 |
| 고등동 | 150.5 | 152.0 | 1,284.6 | 1,270.6 | 615.6 | 639.5 |
| 매교동 | 152.9 | 143.0 | 1,831.4 | 1,855.6 | 626.5 | 642.8 |
| 매산동 | 233.4 | 254.5 | 1,392.8 | 1,398.9 | 853.1 | 970.6 |
| 우만1동 | 147.5 | 134.0 | 1,422.4 | 1,448.3 | 1,038.1 | 1,069.2 |
| 우만2동 | 132.1 | 122.5 | 710.6 | 724.6 | 1,382.5 | 1,406.2 |
| 인계동 | 132.3 | 122.5 | 842.3 | 864.8 | 1,079.1 | 1,104.3 |
| 지동 | 123.8 | 98.0 | 1,128.6 | 1,157.1 | 674.2 | 682.5 |
| 행궁동 | 87.1 | 91.0 | 1,419.1 | 1,484.7 | 409.7 | 441.6 |
| 화서1동 | 96.3 | 93.5 | 537.9 | 555.1 | 1,262.9 | 1,269.4 |
| 화서2동 | 81.8 | 73.5 | 873.7 | 637.3 | 2,092.4 | 2,159.4 |
| 영통구 | 116.5 | 100.0 | 1,170.1 | 1,002.6 | 1,729.3 | 1,374.5 |
| 광고1동 | 120.4 | 108.5 | 1,282.2 | 1,052.1 | 873.8 | 905.8 |
| 광고2동 | 92.4 | 87.5 | 2,017.5 | 1,914.6 | 1,805.9 | 1,645.6 |
| 매탄1동 | 108.8 | 104.5 | 587.4 | 591.9 | 994.6 | 1,051.9 |
| 매탄2동 | 99.7 | 94.5 | 702.0 | 709.5 | 744.8 | 719.5 |
| 매탄3동 | 115.4 | 82.0 | 828.1 | 817.9 | 720.6 | 620.7 |
| 매탄4동 | 105.2 | 104.5 | 393.0 | 336.0 | 924.6 | 955.8 |
| 영통1동 | 94.5 | 93.0 | 1,059.9 | 1,060.8 | 2,701.9 | 2,702.9 |
| 영통2동 | 156.5 | 121.0 | 1,306.3 | 1,273.3 | 2,423.8 | 2,473.4 |
| 영통3동 | 125.7 | 111.0 | 858.0 | 842.1 | 2,933.3 | 2,954.5 |
| 원천동 | 152.3 | 167.0 | 753.4 | 804.5 | 886.5 | 876.7 |
| 태장동 | 109.6 | 94.5 | 2,135.3 | 2,090.9 | 2,870.7 | 2,941.9 |



발행인 □ 최병대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